

明代 官話의 性質과 基礎方言 小考

朱 星 一*

◁ 목 차 ▷

I. 序言	IV. 官話의 基礎方言 問題
II. 官話의 規範性 問題	V. 朝鮮이 追求했던 中國語와 明代 官話의 關係
III. 官話의 言語 形式 問題	VI. 小結

I. 序言

言語는 그 발전 과정에서 分化와 統一을 반복하게 된다. 中國에서 “共同語”¹⁾란 社會 全體 構成員이 共通으로 使用하는 社會共通語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統一 社會 속에서 각 方言 지역간의 圓滑한 意思疏通을 위해 자연스럽게 形成되어 왔다. 《論語·述而》에서 말하고 있는 “雅言”, 西漢 楊雄의 《方言》에서 말하고 있는 “通語”, 明清 시기의 “官話”, 그리고 現代의 “普通話” 등이 모두 社會共通語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共通語는 일종의 社會方言으로서 모 지역의 方言을 基礎로 하여 형성된다. 그렇다면 그 基礎方言은 어떻게 確定되어지는가? 여기에는 主觀的 要因이 개입될 수 없으며, 그 社會의 정치, 경제, 문화, 인구분포 등 客觀的 要因들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現代의 共通語인 “普通話”가 北京音을 標準音으로 삼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社會의 客觀的인 要因들이 주로 작용한 것이다.

明代 官話의 性質과 基礎方言 問題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學者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만 아직 學術界에서는 이렇다 할 統一된 見解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明代의 官話를 구체적인 音系를 갖춘 實質的인 言語 體系로 보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話者들의 心理에 存在하는 抽象的인 言語 體系로 보고 있다. 또한 그 基礎方言 問題에 있어서도 意見이 분분한데 최근에는 크게 北京音說과 南京音說 이 두

* 慶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이하 본문에서는 “공통어(共同語)”를 원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어(共通語)”로 표기한다.

가지 意見으로 대별되고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주장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證據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本 論文은 朝鮮時代 각 文獻資料 중의 中國 關聯 기록들을 통해 明代 官話의 性質과 그 基礎方言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官話의 規範性 問題

耿振生은 明代 官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상태의 공통어는 인위적인 간섭 없이는 사회 전체가 공인하는 명확한 규범을 이루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연상태의 공통어로서 유일하고도 명확한 표준음계란 있을 수 없다. 만약 명확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현대 보통화(普通話)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관화(官話)의 정확한 음계를 재구하려 한다면 아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處於自然狀態下的共同語, 不經過人爲的干預, 還不可能自發地成爲一套爲全社會公認的明確規範, 也就是說不存在一種‘唯一正確’的標準音系統. 我們若按今天的有明確標準的普通話音系這種情況去尋找從前的官話音系, 大概是找不出來的.)²⁾

그의 말처럼 現代 普通話를 제외하고는 歷代 共通語의 모든 形態에 확실히 固定된 標準이 없다. 現代 普通話가 北方話를 基礎方言으로, 北京音을 標準音으로 하여 제정되었음은 主旨의 事實이다. 이와 같이 言語의 規範化란 某種 言語의 語音, 語法 그리고 語彙 등 각 部門에서의 標準을 명확히 提示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또한 이러한 言語의 規範化는 人爲의 干涉의 程度 즉 그 社會의 經濟水準, 각 構成員들의 教育水準, 각종 傳達 媒體의 發達 水準에 의해 決定되며, 여기에 따라 그 공유 범위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 明代의 官話는 상대적으로 現代의 普通話보다 그 規範化 程度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中國 歷代 共通語 중 普通話의 規範化 程度가 가장 徹底함은 主旨의 事實이기는 하지만 實際의 運用에 있어서는 普通話에서 역시 地域別로 일정한 差異를 보이고 있음 또한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中國의 廣東이나 湖南 사람들이 말하는 普通話와 北京 사람들이 말하는 普通話의 발음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철저한 規範化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明代의 社會의 背景을 감안한다면 當時의 官話에서 成文化된 語音의 體系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胡明揚은 明代의 官話가 漢民族의 共通語였기

2)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120쪽, 語文出版社, 1992年.

는 하지만 漢民族의 標準語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³⁾ 이는 바로 社會 諸般 條件에 의한 規範化의 程度를 意識한 主張이다.

III. 官話의 言語 形式 問題

中國語는 대체로 口語와 書面語 즉, 입말과 글말이라는 두 形式으로 나눌 수 있다. 口語는 사람들이 직접 입으로 意思疏通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며, 書面語는 文字를 사용하여 적어서 意思疏通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口語와 書面語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며 발전하게 된다. 書面語는 口語의 基礎 아래 生成되지만, 書面語가 일단 生成되면 일정한 獨立性을 갖게되며 逆으로 口語의 語彙를 풍부하게 하고 規範化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口語와 書面語의 交叉 關係는 共通語의 形成에 중요한 作用을 하게 된다. 中國의 歷代 共通語는 일반적으로 當時에 가장 權威 있는 方言 즉 基礎方言의 口語音을 基礎로 하여 正統 韻書에 나타난 讀書音과 기타 方言 중의 일부 語音을 수용하면서 形成된다. 李新魁는 共通語의 내부 형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 공통어의 표준음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서면어로서의 표준음이며, 또 하나는 구어로서의 표준음이다.(漢語共同語의 標準音, 實際上一直表現於兩個方面, 一個是書面共同語的 標準音, 一個是口語共同語的 標準音.)⁴⁾

共通語의 형성 과정으로 볼 때, 그 내부에 口語音과 書面音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짐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에提及한 李氏의 말을 共通語 내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語音 體系가 共存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口語音과 書面音은 相互 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共通語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語音 體系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共通語의 형성 과정에서 口語音은 도대체 어떻게 書面音의 影響을 받게 되는가? 筆者는 基礎方言의 口語音이 다른 지역과의 發展 速度의 差異로 인하여 다른 지역들에서 普遍的으로 사용되는 語音과 相沖될 때,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의

3) “民族共同語一般是自然形成的, 可以沒有明確的規範, ‘官話’正是這樣一種漢民族共同語, 民族標準語是明確規範的民族共同語, 是在民族共同語發展的一定階段人爲的推廣的, 普通話就是這樣一種漢民族標準語.”(胡明揚, 〈普通話和北京話〉, 《語言學論文選》, 167-187等, 商務印書館, 1987年.)

4) 李新魁, 〈論近代漢語共同語的標準音〉, 載《語文研究》, 1980年 第1期.

圓滑한 交流을 위해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明代 北京의 口語에서는 入聲의 消失이 비교적 빨랐다. 하지만 北京을 제외한 北方의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 過渡期的인 入聲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韻書들이 入聲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 살아있는 入聲이 官話에 反映되었을 것으로 본다.⁵⁾

위에서 우리는 共通語의 形成 過程에서 口語와 書面語의 相互 作用에 대하여言及하였는데 한 가지 注意할 것은 書面語의 발전이 口語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書面語 역시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漢語의 歷史를 볼 때 書面語는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唐代 以後의 近代 時期에 書面語가 文言文에서 白話文 爲主로 변해 가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近代에 들어서면서 書面語가 점점 口語에 근접해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緣由이다.

耿振生은 官話의 語音 形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官話는 口語의 形式이지만 中國語의 口語는 다분히 書面語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官話는 더욱 그러하다.(官話是口頭語言, 但漢語的口語受書面語的干擾很大, 官話尤其如此.)⁶⁾

明代의 官話는 現代의 普通話의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미 상당히 입말 즉 口語에 近接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共通語의 내부 형식에 있어서 官話가 普通話보다 상대적으로 書面語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임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官話의 基礎方言 問題

明代 漢民族의 共通語인 官話가 書面語와 口語의 融合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官話의 基礎方言 問題는 사실상 共通語의 口語 問題라 할 수 있다. 官話의 基礎方言이 官話의 骨幹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基礎는 基礎일뿐 官話 그 자체와는 여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基礎方言은 다시 書面語 그리고 其他 方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社會方言이라 할 수 있는 共通語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共通語는 다시 周圍 方言 地域으로 擴散되면서 그 運用 範圍가 점점 넓어

5) 拙稿, 《15,16世紀朝漢對音研究》, 2000年12月,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49-263쪽.

6)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120쪽, 語文出版社, 1992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明代의 官話는 도대체 어느 지방의 方音을 基礎로 형성되었을까? 이제까지의 研究로는 크게 ‘北京音說’과 ‘南京音說’이 主流를 이루며 論爭을 벌여왔다. 그 중 가장 普遍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見解는 ‘北京音說’이다. 現代 漢民族의 標準語라 할 수 있는 普通話는 制定 當時 이미 “北方話”와 “北京音”을 각각 基礎方言과 標準語로 삼는다고 明文化되어 있다. 하지만 普通話의 이러한 分명한 規定을 明代의 官話에서도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何九盈 先生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느 한 方言이 전국적인 표준 ‘官話’로 정해진 것은 辛亥革命을 前後로 해서야 비로소 발생한 일이다. 明代 末期엔……근본적으로 어느 한 方言을 官話의 ‘標準’으로 정한 바가 없다. (把一種方言定爲全國的標準‘官話’, 這是辛亥革命前後才有的事情. 至於明朝末年, ……都沒有明確法定某一種方言作爲官話‘標準’.)⁷⁾

何九盈 先生의 말처럼 當時의 官話는 自然發生的인 것이었으며 共通語의 傳播 역시 人爲的인 干涉이 크게 작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明代 官話의 基礎方言 問題를 두고 벌이고 있는 攻防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筆者는 그 중 新興하고 있는 “明代 基礎方言 南京音說”에 대해 몇 가지 問題點을 지적하려 한다. 當時 官話의 基礎方言이 南京音이었다고 主張하는 학자들의 주요 根據는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歷史 文獻 記錄으로 볼 때 明末의 宣教師 Nicolas Trigault 등이 記錄한 語音⁸⁾은 全國의 通用되던 官話였으며 入聲이 保存되고 있는 점 등 南京音의 體系를 보이고 있다.

둘째, 歷史的인 側面에서 볼 때 明代의 北京音은 아직 共通語의 標準音이 될만큼 그 地位를 확보하지 못했다.⁹⁾

Nicolas Trigault의《西儒耳目資》에서 반영하고 있는 音系가 南京音 爲主의 官話임은 많은 학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筆者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다. 하지만 北京音이 明代에 이르기까지 漢語史에서 아직 그 位置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見解는 한마디로 옳지 못한 主張이다.

基礎方言의 設定은 각 時代의 政治, 經濟, 文化와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古代

7)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245쪽, 廣東教育出版社, 1995년.

8) 《西儒耳目資》

9) 曾曉渝, 《試論西儒耳目資的語音基礎及明代官話的標準音》, 載《西南師範大學學報》, 1991年1期.

商, 周 時代부터 北宋시기까지 中國 歷代의 王朝는 대부분 黃河 流域 長安(지금의 西安), 洛陽 그리고 開封 一帶를 중심으로 都邑을 정해 왔다. 宋代를 기점으로 中原의 文化는 서서히 南方으로 널리 擴散되며 급기야 明代에 이르러서는 南京에 都邑을 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一連의 文化 흐름을 이유로 明代 北方話의 地位를 무시할 수는 없다. 漢語史를 살펴보면 北方話가 南方話보다도 훨씬 앞서서 이미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春秋戰國 時代의 “雅言”, 漢 時期의 “通語” 등이 모두 北方話를 基礎로 한 共通語였다. 또한 明代 以前에 遼와 金을 거쳐 元에 이르기까지 北京은 줄곧 名實相符하게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地 役割을 해 왔음을 否認할 수 없다. 明 政府의 出帆(1368年) 以後 不過 50여 년(1421年)만에 北京으로 다시 遷都를 하게 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北京은 歷史적으로 그 地位와 重要性을 看過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朝鮮時代 申叔舟는 《洪武正韻譯訓》에서 “燕都(지금의 北京)는 萬國이 모여드는 곳이다”(“燕都爲萬國會同之地”¹⁰⁾) 라고 하였는데, 이렇듯 當時 北京은 第 3 國에서도 認定을 받을 만큼 中國 全 社會의 中心地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北京音은 明代 以前에 이미 基礎方言의 地位를 획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明代에 이르러 南京音의 地位가 加一層 상승 했다고 해도 南京音을 基礎方言으로 한 南方官話와 北京音을 基礎方言으로 한 北方官話가 共存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 明代의 北方官話와 南方官話는 모두 中原官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北方官話의 成立은 南方官話보다 앞섰음을 알 수 있다. 그 관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北方官話 : 中原官話 + 北京音

南方官話 : 中原官話 + 南京音

V. 朝鮮이 追求했던 中國語와 明代 官話의 關係

高麗(918~1392)에 이어 朝鮮(1392~1896) 역시 계속해서 中國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특히 政府의 주도하에 中國語의 學習이 꾸준히 중시되어 왔다. 當時 韓國人이 學習의 目標로 삼았던 中國語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10) 《洪武正韻譯訓·序文》

어떠한 성질의 言語였는지에 대해 學術界에서는 아직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어떤 나라 어떤 時代를 莫論하고 外國語를 學習할 때 우선적으로 考慮하는 것은 對象 言語의 權威와 標準性 問題이다. 이를테면 外國語를 배우고자 할 때 特殊한 目的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나라 일개 지방의 方言을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外國語의 學習은 상대 국가 사람들과의 圓滑한 交流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當時 中國語의 學習 역시 中國과의 外交와 貿易등을 위해 重視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筆者는 當時의 대명 使行의 目的地와 使行 路線이 당시 朝鮮에서의 學習 目標가 되었던 中國語의 性質을 밝히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 왜냐하면 使行의 目的地라면 습득한 中國語가 직접적으로 意思疏通에 사용되었던 곳일 것이며, 또한 使行 路程에서는 습득한 中國語를 現地人들과 비교 검토하며 加一層 中國語를 습득할 수 있는 學習의 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交通이 그다지 편리하지 않았을 當時의 상황과 使行 目的地에서의 한정된 시간을 考慮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使行 路程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13世紀 後半부터 14世紀까지 高麗의 각 계층 사람들이 元나라와 交流하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심지어 《高麗史》의 記錄에 의하면 高麗의 忠烈王(1275년~1308년)은 在位 34년동안 무려 14차례나 元나라의 首都였던 大都(지금의 北京)를 왕래 했음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양국의 經濟, 文化, 學術등의 交流가 점차 擴散되면서 고려의 貴族들이 元나라에서 留學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李谷과 李穡 父子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元나라의 官職에까지 올랐음도 主旨의 사실이다. 이렇듯 빈번한 교류는 급기야 大都를 중심으로 東北部 地域인 沈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高麗의 流民 집단 居留地域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高麗 末期에는 元明의 交替로 인한 어수선한 國際情勢때문에 頻繁했던 交流가 잠시 完화되기는 했지만, 朝鮮에 들어서면서 中國과의 往來가 다시 頻繁해 졌다. 使行의 種類에는 크게 正朝使, 聖節使, 千秋使, 冬至使 등의 定期적인 使行과 謝恩使, 進賀使, 陳慰使, 進獻使 등의 不定期적인 使行이 있었는데, 한 번의 使節團에는 正使, 副使, 書狀官 등 三使를 포함하여 대략 200에서 300명의 수행원들이 함께 했으니¹²⁾ 실로 적지않은 인원들이 年間 中國을 공식적으로 往來한 것이다.

11) 朴真奭, 《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 60쪽, 遼寧人民出版社, 1984年.

12) 金海宗, 《韓中關係史研究》, 65-66쪽, 一潮閣, 1980년.

朝鮮 使臣들의 對明 使行路는 明과 朝鮮의 內外 政勢에 의해 陸路와 海路를 선택 이용하였는데, 中國의 元明 交替期와 明清 交替期 즉, 14世紀 末과 17世紀 初에는 海路를 이용하였고, 이 두 시기를 제외한 王權의 安定期에는 모두 비교적 안전한 陸路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南京에 都邑을 정한 明 太祖는 高麗와 朝鮮의 使臣들에게 어지러운 自國의 政勢를 알리기를 꺼려하여 遼東과 華北의 陸路를 禁하고, 대신 海路를 利用하여 往來토록 하였다. 하지만 明 成祖의 卽位(1402년) 후에는 朝鮮의 使臣 一行이 陸路를 통해 往來하려는 朝鮮 朝廷의 要請을 許可하였으며, 얼마 후 北京으로의 遷都(1421년)와 더불어 거의 모든 使行은 陸路를 통해 이루어진다. 陸路를 이용한 使行의 경우, 往復의 路程에 대략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北京에서의 滯留 期間은 使行의 目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明代에는 40일이라는 制限 期間이 있었음을 勘案한다면,¹³⁾ 한 차례의 使行에는 약 5개월 남짓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朝鮮의 使節團은 朝廷의 뜻을 中國 皇室에 전하는 것이 주요 任務였으므로, 그들의 目的地는 대부분 皇宮이 있는 中國의 首都였다. 그렇다면 南京을 都邑으로 하던 明代 初期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使行의 目的地가 北京이었을 것임도 注目할만 한 일이며 또한 陸路가 使行에 주로 이용되었을 것임도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또한 不得不 海路를 이용한다 하여도 陸路에 비해 船上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므로 자연 路程에서 接觸할 수 있었던 中國人들이란 극히 制限의이었을 것이므로, 海路의 이용과 朝鮮에서 學習의 目標로 삼았던 漢語를 聯關을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對明 出使는 海路를 이용하든, 陸路를 이용하든, 맨 먼저 朝鮮의 首都 京城을 출발하여 邊境인 義州(지금의 新義州)에 도착하게 된다. 《增補文獻備考》(輿地考十二)에 따라 그 대체적인 경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京城→開城府→平山→鳳山→黃州→中和→大洞江→平壤→順安→肅州→安州→嘉山→定州→宣州→龍州→義州

使節團이 義州에 도착하면, 中國의 內外 정세에 따라 海路와 陸路를 선택하여 본격적인 出使의 路程에 오르게 된다. 그 중 陸路의 구체적인 路程에 관하여는 《攷事撮要》《朝天記》《通文館志》등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이 史料들을 통해 대체적인 使行 路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金海宗, 《韓中關係史研究》, 69쪽, 一潮閣, 1977년.

義州→湯站→鎮東堡(松站)→鎮夷堡(通遠堡)→連山關(지금의 遼寧本溪南)→括水站→遼東→盛京(沈陽, 奉天)→廣寧(지금의 遼寧北鎮)→閭陽→石山(十三山)→小陵河→杏山→連山→曹庄→東關→沙河→前屯衛→山海關→撫寧縣→永平→七家峪→豐潤→玉田縣→薊州→三河→通州→北京

우리는 以上을 통해 朝鮮 初期의 주요 使行路로 中國의 東北 地域을 經由하는 陸路가 이용되었으며, 또한 그 目的地는 北京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당시 빈번했던 使行을 통해 접촉할 수 있었던 漢語는 당연히 東北 地域과 北京에서 두루 사용되던 언어였을 것이다.

過去 15, 16세기 中國의 東北 地域과 北京의 漢語 語音에 관하여 中國의 林燾(1987년)는 歷史 記錄과 方言 등의 調查를 통해 당시 東北 地域에서 疏通되던 漢語는 기본적으로 燕京(지금의 北京)語를 基礎로 하고 있어 함께 發展해 왔음을 主張하고 있다.¹⁴⁾ 그의 主張대로라면 金나라로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 北京과 東北 地域은 그 使用 言語에 있어서 燕京話를 중심으로 한 幽燕方言의 테두리로 묶을 수 있으며 語音 體系에 있어서도 큰 差異 없이 하나의 言語圈을 形成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事大의 一環으로 中國語의 學習이 특히 強調되었던 時期이며, 많은 文獻 史料를 통해 目標 言語의 標準性 問題를 심각하게 考慮한 바 있다. 司譯院이 설치(1393년)된 것도 결국은 中國語를 學習하고 장려하기 위함이었는데¹⁵⁾ 司譯院에서의 漢語 學習은 對明 使行 및 貿易 등에 실질적인 必要를 充足시켜 주어야 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司譯院에서 목표로 삼았던 漢語는 당연히 中國에서도 그 權威가 인정받았던 語音 體系였을 것임은 쉽게 推測되어지는 일이다.

訓民正音의 創製(1443년)와 더불어 보다 쉽게 中國語의 發音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이에 발맞춰 한글로 對譯한 中國語 資料들이 大舉 出現하게 되었다. 會話冊인 《翻譯老乞大》과 《翻譯朴通事》를 비롯해 《洪武正韻譯訓》(1455년), 《四聲通考》 그리고 《四聲通解》(1517년) 등 각종 韻書들은 모두 中國語 學習의 直接, 間接的인 教材들로 使用되었는데 當時의 中國語 語音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上述한 여러 서적들이 反映하고 있는 中國語를

14) 林燾, 《北京話溯源》, 《中國語文》, 1987年 第3期. “漢語在東北各族語言中自然就占了優勢, 而當時東北通行的漢語正是在以燕京話爲中心的幽燕方言的基礎上發展起來的.”

15) 《태종실록》 2년(1393년) 9일 : “司譯院肄習華言.”

역시 學習하는 데 있어서, 그 權威와 標準性 問題가 분명 考慮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當時 朝鮮의 朝廷에서는 벼슬아치들의 子弟들을 北京의 國子監에 留學시키려고 明 政府에 수 차례에 걸친 要求를 한 바가 있다. 《世宗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전한다.

① 마땅히 國子監에 入學할 것을 請할 것이요, 遼東의 鄉學에 入學할 것을 아울러 請할 것이 아니옵니다.(宜請入學國子監,不宜并請遼東鄉學.)¹⁶⁾

② 천추사 工曹參判 박안신은 賀箋을 받들고 北京에 가서 子弟들을 北京의 國子監이나 遼東의 鄉學에 入學시켜 줄 것을 奏請하였다.(千秋使工曹參判朴安臣奉賀箋如京師,仍奏請遣子弟入北京國子監或遼東鄉學.)¹⁷⁾

③ 議政府와 六曹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금 온 勅書에서 子弟들을 中國 學校에 入學시키는 것을 許可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中國의 學校에 入學할 희망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中國의 語音은 事大하는 데 關係가 있는 일로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이 子弟들을 義州에 보내어 遼東에 내왕하면서 中國語를 傳習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떨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遼東은 中國의 한 地方으로서 語音이 바르지 않습니다. 臣 등은 생각하기를, 이미 선발한 子弟들을 그대로 司譯院에 머물게 하여 항상 中國 發音으로 된 여러 서적을 익히게 하며, 매년 우리 나라 使臣이 北京에 갈 때마다 함께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며 派遣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中國語를 저절로 깨우쳐 能通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召議政府, 六曹議曰: “今來勅書不允子弟入學之請, 自今入學中國之望, 則已絕. 然漢音有關事大, 不可不慮. 予欲遣此子弟於義州, 使之來往遼東, 傳習漢語何如?” 僉曰: “遼東乃中國一方, 語音不正. 臣等以爲, 前所選子弟, 使之仍仕司譯院, 常習漢音讀書, 每於本國使臣赴京時, 并差入送. 如此循環不已, 則漢音自然通曉.”)¹⁸⁾

①에서 처음에는 強硬하게 留學生을 北京의 國子監으로만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②와 같이 실제로 明나라에 보내는 奏請의 글에는 허가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遼東의 鄉學도 포함을 시켰다. 하지만 明 朝廷의 拒絕로 ③에서와 같이 對策을 議論하게 되는데 우리는 官僚 大臣들이 “遼東은 中國의 한 地方으로서 語音이 바르지 않다”(“遼東乃中國一方, 語音不正”)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이미 當時 中國의 方言과 標準音을 명확히 區別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들이 中國語 學習의 目標로 삼은 것은 일 개 지방의 方言이 아니라 正統과 權威가 있었던 北京音이었음을

16) 《世宗實錄》 15年(1433年) 8月28日條.

17) 《世宗實錄》 15年(1433年) 9月3日條.

18) 《世宗實錄》 15年(1433年) 12月13日條.

알 수 있다. 또한 司譯院에서 漢語 語音を 습득하고 使臣과 함께 北京으로 간다 했으니 司譯院에서 가르친 中國語 역시 北京音과 피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成宗實錄》에서도 보인다.

① 命하여 葛貴를 불러서 술을 내려 주고 이르기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하니, 葛貴가 아뢰기를, “저는 南方 사람이라, 字韻이 바르지 못하므로 잘못이 있을까 두렵습니다.”(命召葛貴賜酒, 謂曰: “汝儘心教誨, 予深喜悅.” 葛貴曰: “俺南方人, 字韻不正, 恐有差誤.”)19)

② 葛貴가 《直解小學》을 보고 말하기를, “反譯이 매우 좋으나 간혹 古語가 있어서 時用에 맞지 아니하고, 또 官話가 아니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위의 《小學》 한 권을 副使에게 보내어 나로 하여금 改正하게 하면, 내가 마땅히 燕京에 가지고 가서 質問하여 보내겠나이다.”(葛貴評價《直解小學》一書說道: “反語深好, 而間有古語, 不合時用. 且不是官話, 無人認聽. 右《小學》一件送副使處, 今我改正, 則我當賞還燕京, 質問以送.”)20)

①에서 葛貴가 스스로를 南方 사람이라 字韻이 바르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였고 (“俺南方人, 字韻不正”) ②에서 번역한 《直解小學》을 평가함에 있어 그 일부 어음이 “官話”와 符合하지 않다고 했고, 옳은 교정을 위해서 《直解小學》을 燕京(지금의 北京)에 가지고 가서 質問한 다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상을 綜合해 보면 當時에 朝鮮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中國語는 燕京音 즉 北京音을 基礎로 한 官話였음을 알 수 있다.

蔡瑛純은 朝鮮時代 使臣들의 對明 使行路들과 접촉지역의 중심 方言들을 토대로 朝鮮에서 學習하고 追求했던 中國語가 대체로 北方 漢語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21) 當時의 韓中間의 主要 使行路는 中國의 內外 情勢에 따라 陸路 혹은 海路가 이용었는데 元과 明의 交替期 즉 高麗 末期와 朝鮮 初期(14世紀 末)에는 中國側의 要求에 따라 주로 海路를 이용하였고 그 目的地는 주로 金陵(지금의 南京)이었다. 하지만 明 成祖의 卽位(1402년)부터는 朝鮮側의 要求대로 陸路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얼마후 北京으로 遷都(1421년)를 한 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使行이 陸路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目的地도 北京으로 바뀌었다.22) 이와 같이 明代의

19) 《成宗實錄》 14年(1483年) 9月21日條.

20) 《成宗實錄》 14年(1483年) 9月29日條.

21) 蔡瑛純, 〈試論朝鮮朝的對譯漢音與中國官話方言之關係〉, 載《語言研究》 1999年 제1期.

22) 金海宗, 《韓中關係史研究》, 69쪽, 一潮閣, 1977年.

대부분의 韓中 使行이 中國 東北 地域의 陸路를 이용한 것이었으며 그 目的地가 北京이었다는 사실은 朝鮮이 目標로 삼았던 中國語가 자연히 北方 漢語와의 接觸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當時 中國의 首都는 北京이었으며 北京은 오랜 中國의 政治, 經濟 그리고 文化의 中心地였다. 그러므로 北京音은 中國語를 外國語로 배우는 제 3 국에서는 당연히 漢語의 標準으로 여겨지기에 손색이 없었을 것이며 朝鮮에서 역시 例外는 아니었을 것이다. 李晔光의 《芝峰類說》(1614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4聲은 平上去入으로 나뉘며 “甲, 葉, 母, 舍” 등은 合口聲으로 불리운다. 우리 나라의 崔世珍은 漢語에 가장 능통했는데 《四聲通解》를 지어 세상에 널리 전했다. 내가 北京에 갔을 때, 安南國사람들은 合口聲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中國의 南方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語音과 恰似하였다. 하지만 中國의 官話에서는 이미 合口聲을 사용하지 않았다.(平, 上, 去, 入爲四聲, 而如甲, 葉, 母²³⁾, 舍之類謂之合口聲, 本朝崔世珍最曉漢音, 著《四聲通解》以傳於世. 余赴京時, 見安南國人用合口聲, 中朝南方人亦間用之, 與我國之音相近, 而中朝官話則絕不用合口聲.)²⁴⁾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아래의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當時 이미 北京音을 기초로 한 “官話”가 존재했으며 적어도 北京에서 사용하던 官話의 語音 體系는 南方의 語音 體系와는 구별이 있었다.

둘째, 當時의 北方官話에서는 이미 -p운미와 -m운미가 소실되었다.

물론 當時의 北京音이 北方官話와 완전히 같았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官話의 生成 過程에서 基礎方言은 書面音과 其他 方言의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北京音과 北方官話의 語音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申叔舟의 《四聲通考·凡例》에서도 엿볼 수 있다.

入聲韻의 終聲이 지금 南音에서는 너무 분명하고 北音에서는 너무 무르다.……지금 “ㄱ, ㄷ, ㅂ”으로 終聲을 삼아 “ㄱ, ㄷ, ㅂ”을 그대로 發音한다면 南音에 가까워지니 다만 輕微하게 사용하고 끝을 급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구별이)너무 분명하게 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지금 俗音에서는 終聲을 쓰지 않았지만 아직 平聲, 上聲, 去聲만큼 무른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俗音의 終聲에는 모두 喉塞音인 “ㅎ”를 사용하였고 藥韻에만

23) “母”는 분명 오기(誤記)인 것 같다. 예로 든 나머지 “甲, 葉, 舍” 세 자는 중고 시기에 모두 “합구성(合口聲)”이었지만 “母”는 “합구성(合口聲)”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직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관계로 차후의 연구 과제로 미루어 둔다.

24) 再引用, 陳植藩, 《論崔世珍在朝鮮語文和漢語研究方面的貢獻》, 《民族語文論集》, 148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脣輕音인 “병”을 사용하여 구별을 하였다.(入聲諸韻終聲,今南音傷於太白,北音流於緩弛,……今以“ㄱ, ㄷ, ㅂ”爲終聲,然直呼以“ㄱ, ㄷ, ㅂ”則又似所謂南音,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且今俗音雖不用終聲,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故俗音終聲於諸韻用喉音全消“ㅇ”,藥韻用脣輕全消“ㅁ”以別之.)²⁵⁾

만약 당시에 申叔舟의 思考 속에 中國語 語音의 標準이 없었다면 절대로 “너무 분명하다(太白)”라든가 “너무 무르다(緩弛)”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筆者는 當時 申叔舟의 觀念 속에 마치 저울의 중심 구실을 한 語音 體系가 있었으며 이것은 분명 官話였으리라고 본다. 이 官話는 當時 南北方의 實際 口語音과 완전히 一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俗音” 즉 申叔舟가 추구했던 官話의 入聲은 “南音”처럼 /-k/, /-t/, /-p/를 終聲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北音”처럼 陰聲韻의 平聲, 上聲, 去聲에 완전히 흡수되지도 않은 소리로서 끝은 促急하되 너무 분명하지 않을 정도(“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의 音價였으며, 이러한 入聲의 終聲을 “俗音”에서는 “ㅇ”/ʔ/ 혹은 “ㅁ”/f/로 그 消失의 過渡期적인 音價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VI. 小結

이상의 論述을 통해 우리는 初步的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結論에 도달했다.

첫째, 明代의 官話는 規範화된 現代 普通話에 비해 人爲的인 干涉과 拘束力을 갖지 못했으며 成文化된 具體的인 語音 體系를 갖추지 못했다.

둘째, 明代의 官話는 基礎方言의 口語音을 바탕으로 하여 書面音과 일부 其他方言의 影響을 받아 形成되었다.

셋째, 明代의 官話는 京音을 基礎로 한 北方官話와 南京音을 基礎로 한 南方官話의 두 體系가 共存했으며 時代的으로 볼 때 北方官話의 成立이 南方官話보다 빨랐다.

넷째, 朝鮮初期(14-15世紀)에 朝鮮에서 學習의 目標로 삼고 追求하던 中國語는 北京音을 基礎로 한 北方官話였다.

25) 申叔舟, 《四聲通考·凡例》第8條.

【參考文獻】

- 申叔舟,《洪武正韻譯訓》(1455年),大提閣影印本,1985年。
- 王力,《漢語史稿》(《王力文集》第9卷),山東教育出版社,1988年。
- 唐作藩,《普通話語音史話》,語文出版社,2000年。
- 何九盈,《中國古代語言學史》,廣東教育出版社,1995年。
- 何九盈,《中國現代語言學史》,廣東教育出版社,1995年。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況》,北京大學出版社,1994年。
- 耿振生,《明清等韻學通論》,語文出版社,1992年。
- 向熹,《簡明漢語史》(上、下),高等教育出版社,1993年。
- 朴真爽,《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遼寧人民出版社,1984年。
- 陳尚勝,《中韓交流三千年》,中華書局,1997年。
- 金海宗,《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1977年。
- 丁鋒,《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年。
- 姜信沆,《四聲通解研究》,新雅社,1980年。
- 姜新沆,《韓國의 譯學》,서울大學校出版部,2000年。
- 胡明揚,〈《老乞大諺解》和《朴通事諺解》中所見的漢語、朝鮮語對音〉:《中國語文》1963年 第3期。
- 胡明揚,〈普通話和北京話〉:《語言學論文選》,商務印書館,1987年。
- 楊耐思,〈普通話語音探源〉:《近代漢語音韻論》,商務印書館,1997年。
- 李新魁,〈論近代漢語共同語的標準音〉:《語文研究》1980年 第1期。
- 林燾,〈北京話溯源〉:《中國語文》1987年 第3期。
- 黎新第,〈近代漢語共同語語音的構成,演變與量化分析〉:《語言研究》1995年 第2期。
- 平山久雄,〈北京文言音基礎方言里入聲的情況〉:《語言研究》1995年 第1期。
- 張玉來,〈近代漢語共同語的構成特點及其發展〉:《古漢語研究》2000年 第2期。
- 曾曉淪,〈試論《西儒耳目資》的語音基礎及明代官話的標準音〉:《西南師範大學學報》1991年 第1期。
- 魯國堯,〈明代官話及其基礎方言問題一讀《利瑪竇中國雜記》〉:《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1985年 第4期。
- 張衛東,〈論《西儒耳目資》的記音性質〉:《紀念王力先生九十誕辰文集》,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金薰鎬,〈從利瑪竇、金尼閣的漢語拼音看明代晚期的官話音系〉:《語言研究》1994年增刊。
- 蔡瑛純,〈試論朝鮮朝的對譯漢音與中國官話方言之關係〉:《語言研究》1999年 第1期。
- 李鍾九,〈《老乞大·朴通事》漢語語音研究〉,復旦大學校博士論文,1996年。
- 拙稿,〈從《翻譯老乞大·朴通事》左側音看近代漢語入聲〉:《古漢語研究》2000年 第2期。
- 拙稿,《15、16世紀朝漢對音研究》,北京大學校博士學位論文,2000年。

【中文提要】

共同語是社會全體成員共同使用的語言，則在統一的社會中操各種方言的人彼此交流時共同使用的語言。明清時代，漢民族共同語叫做“官話”。對明代官話的性質和其基礎方言問題，至今還沒有統一的看法。我們認為基礎方言的問題實際上是共同語口語音的問題。官話一旦在其基礎方言地區形成之後，就逐漸擴散到周圍方言地區，成了在廣大地區運用的交際語言。但是，官話的基礎方言只是基礎方言而已，並不等於官話本身。基礎方言的音系再依據書面音和其他方音改造後，才能被承認為官話。

本文通過韓中兩國的歷史文獻資料和其他有關資料，先了解15、16世紀韓國人追求的漢語的具體性質，然後在這基礎上對明代官話的性質和其基礎方言問題加以做出新解釋。

【主題語】明代官話，基礎方言，書面音，口語音